

# 신암초 '여다운', '제49회 충남 소년체육대회 육상대회' 3관왕

## 100m, 200m, 400mR 1위...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귀추 주목

신암초등학교(교장 박종팔) 6학년 여다운 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서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9회 충남 소년체육대회 육상대회에 참여해 육상 100달리기 1위, 200m 달리기 1위, 400mR 달리기 1위로 3관왕을 차지했다.

여다운 학생은 "기록을 세우지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1등을 했기에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국가 대표를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성적에 대한 객관적



인 평가와 더불어, 충남에서 나아가 전국대회를 목표로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성현희 지도교사는 "이번 대회에 3관왕을 해서 너무 기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기쁜 감정은 잠시 눌러두고 앞으로 있을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위해 다은이와 함께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여다운 학생과의 열의를 다졌다.

빛나는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향한 여다운 학생의 무겁고도 힘찬 발걸음을 끝, 여름에 다가올 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의 귀추가 주목된다.

최용관 기자

# 육천 장야초, 이사장배 전국 소프라테니스 대회 단체전 우승...내동초 2-1로 물리쳐



장야초등학교(교장 이숙경) 소프라테니스부는 26일 열린 제14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소프라테니스대회 여자초등부 단체전 결승전에서 대전 내동초를 2-1로 물리치고 당당히 전국대회를 제패했다. 처음 맛보는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이라는 성과 앞에서 학생선수들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승패를 안았다.

전 2선승제의 단체전에서 장야초는 첫번째 최유아-박소연조가 출전해 1-4로 첫경기를 내주며 출발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문수진-권은지 조가 출전해 게임스코어 3-3으로 파이널까지 끌고 갔고 손

코어 10-8로 두 번째 경기를 승리해 세트스코어 1:1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지막 세 번째 조에는 김민화-김주에 조가 출전해 4:0으로 승리해, 세트스코어 2:1로 최종 승리를 했다. 또한, 2경기에서 극적인 승부를 보여준 문수진, 권은지 선수는 이번대회 여자초등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문수진(6학년) 학생은 "아직도 배울 것, 고칠 점이 많지만 앞으로 7월에 예정되어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도 남은 시간동안 더 착실히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꼭 거두겠다"고 했다.

이기덕 기자

# 태안교육지원청, 중등 과학토론대회 개최로 과학적 의사소통역량 신장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승)은 지난 7일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토론대회를 실시했다.

과학토론대회는 토론준비, 발표, 작전타임, 질의 응답하기, 주장 다지기 등의 토론의 단계를 거치며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사고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태안 관내 중학생 10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치며 환경 속 과학으로 생각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희승 교육장은 "과학토론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의사소통역량과 과학적 창의력이 커가는 과학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회 운영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키우는 과학교육 터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학토론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학생은 태안군을 대표해 충청남도과학토론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필 기자

# 천안제일고,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동메달



천안제일고등학교(교장 변영우) 태권도부 이동은 선수(-56Kg, 플라임급)와 권준하 선수(-76Kg, L-미들급)가 지난 4월 27일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천안제일고 태권도부는 1982년 창단했으며 현재까지 우수한 경기력을 갖춘 지역의 명문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2019년 제28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금메달,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태권도대회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변영우 교장은 "태권도부 학생 선수들이 그동안 동계훈련 등에 충실히 임한 결과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메달 획득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으며, 앞으로도 태권도부 학생 선수들이 학업 및 훈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 청양교육지원청, 기초학력 '두레맘' 위촉식 및 연수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동우)은 지난 6일 청양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기초학력 마을교사 '두레맘' 위촉식 및 한글미해득 해결방안 연수를 실시했다.

기초학력 '두레맘'은 지난 9월 학습격차해소 토론회에서 학생 개인별 기초학습 맞춤 협력 교사 지원을 제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중점 활동이다.

기초학력 '두레맘'은 푸른빛 고을 마을교육공동체의 마을교사 또는 지역주민 중 학습지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협업해 관내 초·중학교 중 두레맘을 신청한 학교를 방문해 교과 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 지도를 한다.

한 학생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상담과 학습교정을 병행해 학생 개인별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9월 시작한 '두레맘'사업은 한글미해득 학생수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한글 교육을 중심으로 기초학력지도 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정서 지원 등 통합지원으로 학습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우 교육장은 "학생을 대하는 최우선은 학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두레맘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의 학습격차에 대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청양의 학력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진 기자

이날 연수는 두레맘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예산 구만초 이옥 강사의 한글미해득 해결방안과 기초학력 향상 지도방법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학교와 담임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 진천 상업고, '소중한 친구' 오행시짓기 시화전

## '4월 27일부터 1주일간 40여점 교내 전시'



진천상업고등학교(교장 김원목)는 장애인의 날 주관을 맞이해 '소중한 친구'를 주제로 한 '오행시 짓기 시화전'을 지난 27일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혁신지원사업 '같이 가치 자존감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비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개성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협력과 소통,

배려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진천상고 학생들은 각 반 교실에서 의견을 한데 모아 오행시를 짓고 시화로 완성해 반별로 1~2편의 작품을 제출했으며, 교직원들도 조를 이뤄 오행시 짓기 시화전에 참여해 뜻깊은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진천상고 오성환 교장은 "기대 이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참여가 뜨거워 사회적 약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잘 살아난 것 같다"며, "주제에 부합하는 따뜻한 마음도 기발한 글들이 많이 응모됐고 이 작품들로 시화전을 열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금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같이'하는 가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병중 기자

# 서천교육지원청, 미래인재기움 영재 프로그램 운영

## 미래 시대 대비한 영재 교육 혁신 프로그램 운영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은 지난 8일 서천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첫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영재 혁신 프로그램은 △코딩 활용 인공지능(AI) 교육 △환경융합형 인공지능(AI) 프로젝트 학습 △3D 모델링 교육 △실감형(AR/VR)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육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부내초등학교 6학년 참여 학생은

"말종 위기 동물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영화에서만 보는 미래의 모습을 제가 만드는 것 같아 신기하면서도 즐거웠다. 직접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만희 교육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역 인재 기움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임종복 기자

# 제천중, 제40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준우승

제천중학교(교장 이현호) 하키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제천 청풍에서 열린 제40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에 참가해 남자중등부 2위라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제천중학교 하키부는 준결승전에서 김제중학교와 겨루어 7:0으로 승리했고, 결승전에서 충남 아산중학교에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개인상 부문에서는 3학년 김찬수 선수가 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교내에 하키 훈련장이 없어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6명의 학생 선수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웃

음을 잃지 않고 하키에 대한 열정 하나로 훈련한 결과이다.

최동명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뜨거운 필드 위에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훈련한 결과물이며, 아울러 제천중학교 하키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오우환 체육부장님, 최장민 교감 선생님, 이현호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천중학교 하키부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좋은 과정과 결과를 얻기 위해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채철수 기자

# 홍성공고 학생들, 분실물 지갑 주인찾아줘!

4월의 포근한 날씨만큼 홍성공업고등학교(교장 최인호) 따뜻한 학생들의 훈훈한 미담이 있어 화제다.

지난 4월 27일 결성면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께서 학교에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있었다. 곤란에 처한 자신을 도와준 홍성공고 학생들을 칭찬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셨다.

지난 주말 어르신께서는 지갑을 분실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해 찢찢매던 중, 결성면사무소에서 어르신께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의 지갑을 습득해 보관하고 있으니 가져가시라는 이야기가 되었다. 한달음에 면사무소 달려 자신의 지갑을 확인하시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들은 결과, 홍성공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갑을 습득해 면사무소에 맡겼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다시 돌려받은 지갑에는 분실당시 들어있던 30여 만원의 현금과 카드 등이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할아버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얼굴도 모르는 홍성공고 학생들을 찾아 부러부러 직접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자초지종을 들은 학교에서는



훈훈한 마음씨를 가진 주인공 학생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갑을 면사무소로 전달한 4명의 학생들을 찾아냈다.

할아버지는 "요즘 학생들한테 찾아보기 어려운 인성이리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교육에 힘써주신 덕"이라며 학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정직하고 바른 학생들 덕에 큰 어려움에 처할 뻔한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게도 연신 칭찬과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다.

4명의 친구들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할아버지께 너무 과분한 칭찬을 들으니 민망하다면서 멋쩍은 웃음을 표했다.

한성진 기자

#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원장 김종신)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1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운영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서와 함께하는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지도 전문가와 함께 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산지역 산울공부방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초등1~4학년 9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5월부터 8월까지 15회차로 진행된다.

김종신 원장은 "지역적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부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661-83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금현 기자